

여호수아 22 장

**길르앗의 돌단 건축으로 인한 갈등, 예배의 새로움,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  
(찬송 시편 19 편 3-6 절 – 악보는 맨 뒷장에)**

2026-1-26, 월

**맥락과 의미**

14-21 장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2-24 장은 역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22 장은 4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24 에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강 서쪽 길갈에 세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념과 기점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2 장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1-10 절)

두 지파반이 요단 서쪽에 제단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 후 사신을 보냅니다(11-20 절)

두 지파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연합의 표시로서 만들었다고 해명합니다(21-34 절).

그들이 기념돌을 세운 것이 분쟁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실수, 부족과 위기까지도 사용하셔서 예배와 성도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 1. 요단강 동쪽 지파(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냄 (1-10 절)**
- 2.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돌단을 쌓은 것 때문에 오해와 화해 (11-20 절)**
- 3. 두 지파반의 해명과 새로운 화해 (21-34 절)**

## 1. 요단강 동쪽 지파(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냄 (1-10 절)

이제 서쪽의 가나안 지역의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각 지역에 남은 적들이 있는 상태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기업인 동쪽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을 순종했다. 땅을 얻지 못한 지파들 앞에서 싸워 그들도 기업을 얻게 했다.”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붙어라.”(2-5 절)

하나님께 친근히 한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참 기업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탈취한 재물들을 가져가서 자기 원래 가족들과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 2.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돌단을 쌓은 것 때문에 오해와 화해 (11-20 절)

2 지파 반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강변에 아주 큰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강을 건너 자기들이 있는 땅으로 왔습니다.

서쪽에 있던 열 지파 백성들은 이 큰 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선언합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부족의 대표 한 명씩, 11 명의 대표가 요단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두 지파 반 지파 대표를 만났습니다. 16 절,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29 절).

과거에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 징벌 당했던 과거가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7 절에 “브올의 죄악으로 여호와와 회중에 진노가 내려 그것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 그 때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제사 음식에 초대받아 갔다가 우상 숭배해서 수만 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직 정결하지 않다.” 하는 그 기억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상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 바친 물건을 손댄 것 때문에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20 절).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내일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18 절)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이 열 지파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해 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지파가 잘못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연대 책임을 아는 그들의 지식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가족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흐트러졌을 때, 잘못 판단하기는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거하는 곳이 깨끗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있는 곳에 거하라. 오직 제단 위에만, 하나님이 정한 제단 위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 3. 두 지파 반의 해명과 새로운 화해 (21-34 절)

기념단을 쌓았던 두 지파 반이 이야기합니다. 기념단은 제사를 지낼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동쪽 2 지파 반도 서쪽 9 지파 반과 동등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모른다 할까 봐, 우리를 하나님 백성과 관계없다 할까 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증거(옛)로서 22:27 에서 “이것을

쌓았다.” 했습니다. 대표들은 그 말을 듣고 즐겁게 되었고, 옹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싸우지는 않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분쟁이 있을 때에 정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신중함이 배울 만합니다.

## 민고 복종할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고 복종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참 신중하지 않게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은 채 단을 쌓아서 그것이 분쟁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새롭게 했습니다. 또 서쪽 이스라엘 열 지파로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흐트러질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리어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배우도록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예배를 바로 지킵시다.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예배를 격려하면서 바른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 성급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의 두 지파 반 지파들, 성급하게 판단을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을 역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9지파 반 대표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공정하게 대해 주는 모습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제 정복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나아가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 되고,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신중히 대하면서 부족을 드러내고 또 서로 오해를 풀어가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유튜브에서 “정영철 시편 19편”을 검색해서 들으며 연습하세요.

## 시편 19

지휘자에게, 영장으로 한 노래

Strasbourg, Geneva, 1542/Lyons, 1548/Daejeon, 2005



1. 하 나 님 영 광 을 하 늘 이 선 포 해 주 님 의 숨 씨 를  
 2. 저 해 를 위 하 여 장 막 을 치 시 니 방 을 나 오 는  
 3. 여 호 와 율 법 은 다 완 전 하 여 서 서 영 혼 을 살 리 네  
 4. 여 호 와 경 외 의 함 이 참 순 결 하 여 서 영 원 을 히 리 있 네  
 5. 주 님 의 종 들 이 그 말 씀 속 에 서 서 영 경 고 를 받 도  
 6. 고 범 죄 로 부 터 보 호 해 주 소 서 서 그 죄 가 주 장 치



7. 궁 창 알 리 네 낮 은 또 낮 에 게 말 씀 을 전 하 고  
 8. 신 량 과 같 도 다 제 길 을 신 나 계 달 리 용 사 라  
 9. 여 호 와 증 거 는 은 제 만 하 여 서 어 은 달 지 끝 큰 반 의 받 으  
 10. 여 호 와 관 키 소 는 주 의 죄 벗  
 11. 여 호 와 관 키 소 는 주 의 죄 벗  
 12. 여 호 와 관 키 소 는 주 의 죄 벗



13. 밤 은 또 밤 에 게 지 식 을 전 하 네 이 야 기 말 소 리 는  
 14. 하 늘 이 끝 에 서 서 솟 아 올 라 와 서 저 하 늘 저 끝 까 지  
 15. 여 호 와 규 레 는 다, 정 직 하 여 서 마 음 에 기 뽐 주 네  
 16. 무 수 한 금 보 물 을, 정 금 보 다 도 사 모 할 것 이 네  
 17. 내 입 의 말 들 과 과 날 날 이 깨 달 아 알 열 납 해 주 읊 소 서



19. 들 리 지 않 아 도 그 소 리 운 땅 에 저 멀 리 퍼 지 도 다  
 20. 힘 차 계 달 리 니 그 뜨 거 움 에 피 할 자 누 구 리 오?  
 21. 여 호 와 계 명 이 은 그 고 순 결 하 여 우 리 눈 밝 게 하 네  
 22. 풀 보 다 더 달 은 송 개 이 꿀 보 보 다 도 다  
 23. 숨 겨 진 내 자 못 자 여 호 와 하 나 님, 정 가 말 씀 더 달 도 다  
 24. 내 반 석 구 자 는 그 영 영 그 정 가 납 해 주 읊 소 서